



# 정의의 종 SNU LAW Newslett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년 Vol.8

## 입학식



사회에 봉사하는 법학,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공부 당부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의지 표명

입학식에서는 호문혁 학장이 법과대학 교수진을 소개한 다음, 학부모와 신입생으로 나누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환영사에서 법전만 외우기보다는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공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정종섭 교무부학장이 매학기 학부모들과 교수들과의 모임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이원우 학생부학장은 장학금 제도와 학생지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하였다.

## INDEX

- 2면 ..... 해외 학술 활동
- 3면 ..... 행사/교수저작
- 4면 ..... 일반 동아리 활동
- 5면 ..... 서울 법대 초청강연
- 6면 ..... 최고지도자과정
- 7면 .....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 국제교류

### 동경대 법대와 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경대에서 3월 8일부터 11일에 걸쳐 제1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경대에서는 이번 학술회의가 내실이 있었으며, 상호 학문적 역량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받아들였고, 제2회부터는 보다 심도있는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 법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예외적으로만 체결하는 동경대 법대로서도 본교와의 교류에서 실질적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버클리 로스쿨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



U. C. Berkeley 로스쿨의 Christopher Edley, Jr. 학장이 새로 취임하여 아시아 지역의 법대를 순방한 후 본교와 교류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본교도 세계화의 구상 속에서 양 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를 희망하여, 제1단계로 교수 및 학생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제2단계에서는 양교에서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개설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시아 법대 학장단 회의

아시아 법대 학장 협의체(Asian Law Institute)는 지난 2004년 구성원 법대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는 13개 법과 대학을 창립 멤버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회가 열렸으며, 본교에서는 정종섭 교무부학장, 이근관 국제부학장, 조국 교수, 조홍식 교수가 참가하였다.

본교는 5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아울러 북경대 법학원 학장, 홍콩대학 법대 학장, 국립대만대학 법대 학장, 미국 워싱턴 주립 대학 법대 관계자 등과 양자 교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홍식 교수는 "Pathology of Korea's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 Is Public Awareness & Deliberation the key to Success?"의 논문을 발표하고, 조국 교수는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의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예일대 로스쿨 방문

호문혁 학장, 이근관 국제부학장, 조홍식 교수로 구성된 본교 방문단은 4월 19일 예일대 법대를 방문하여 해롤드 고(Harold H. Koh) 학장과 만나 양교 교류 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교 간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희망이 표시되었고 아울러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2면에 학생국제교류 기사가 이어집니다.

## 해외 학술 활동



**호** 문혁 교수는 일본 와세다대학의 비교법학지 제40권 2호(2007년)에 '한국에 있어서의 독일 민사소송법 계수 120년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양** 창수 교수는 2007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BK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의 파리에 체재하면서 프랑계약법에 대하여 해외연구를 수행하였다.

## 수 상

### 김재형 교수 제11회 법학논문상 수상



**김**재형(42) 서울대 법대 교수가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1월 31일 프레젠테에서 제11회 법학논문상을 받았다.

**법**학논문상은 국내 법학 분야 논문상 중 최고 권위의 상으로, 한국법학원이 매해 초 한 해 동안 국내 법률 학술지에 공표된 법률관계 연

구논문을 유관기관, 법률학회, 각 대학교 법과대학, 법률전문지 저스티스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 등 53개처로부터 추천받아 학계와 실무계에서 각각 1편씩 수상작을 선정한다.

**학**계 수상작으로 선정된 김 교수의 논문은 긴급명령을 통해 극적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법규정과 법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으로 인해 대포통장 또는 깡통계좌를 양산, 사실상 사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실명거래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 1면에 이어서 학생국제교류 기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학생 차원의 국제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교환 학생은 매년 11~12월에 신청하여 해당 외국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 다음해에 실제로 출국하게 되는데, 현재 오스트리아의 Johannes Kepler대학과 일본 큐슈대학,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에서 각각 한 명씩이 공부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단기 해외연수도 있는데, 미국 Harvard Summer School과 독일 Freiburg International Sommercourse에 한 명씩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에서 본교로 유학오는 학생들도 있다. 학사과정에는 몽골에서 온 학생 3명과 중국에서 온 학생이 재학 중이며,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을 비롯하여 덴마크, 베트남, 일본,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학업을 쌓고 있다.

## 행사

### 송상현 교수 정년기념 학술대회

3월 12일 본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사법학 연구의 첨단'이라는 주제로 심당 송상현 교수의 정년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송상현 교수의 기념강연에 이어 본교 오정후 교수, 충남대 윤영신 교수, 경희대 이상정 교수의 발표가 뒤따랐다. 이 행사 후에 송상현 교수는 2,000만 원을 법대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송상현 교수의 문집도 발간되었다.



### 서울 법대 동문 국회의원 초청 모임

4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서울 법대 동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모임을 가졌다. 본교에서는 호문혁 학장, 정종섭 교무부학장, 이원우 학생부학장, 이근관 국제부학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진표 의원, 문희상 의원, 신기남 의원, 안상수 의원, 이은영 의원, 이인제 의원 등 모두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동문 국회의원들에게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교에서도 동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교수 저작

이번 학기에 출간된 교수의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 권영준

인간의 내면에서 창조된 무형적 재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였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저작권침해판단론/박영사/2007.1월

#### ● 정종섭

판례한국헌법은 동 저자의 「憲法學原論」의 자매편으로서, 「憲法訴訟法」과 「判例憲法訴訟法」을 서로 같이 출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간된 것이다. 헌법학원론 제2판에서는 제1판에서 빼놓은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충하고 내용과 문장도 대폭 손질하였다.



판례한국헌법/박영사/2007.3월  
헌법학원론(제2판)/박영사/2007.2월

#### ● 성낙인

헌법학 제7판에서는 많은 부분에 개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본권 부분에서 그간의 이론과 판례를 반영하여 많은 부분의 개고를 단행하였다.



헌법학(제7판)/법문사/2007.2월

#### ● 신동운

본서에서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의 주변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가능하면 최신의 것까지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과 판례들을 2007년 1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개하였다.



형사소송법(제4판)/법문사/2007.4월



### 일반 동아리 활동

법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연동아리로는 락밴드 베루카, 풍물패 질풍, 이번에 등록된 춤동아리 Go Ahead, 노래동아리 TripleH와 동맥이 있다. 이들 동아리는 신입생 환영회와 봄 공연에서 공연을 펼쳐보였다. 운동동아리도 빠질 수 없다. 축구부, 야구부, 배드민턴부, 탁구부, 신악부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법대 내에

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종교동아리로는 법기독, 버톨릭, 법불(법대불교동아리)이 있으며, 각각 정기적으로 예배와 미사, 법회를 가졌다. 법대 신문사에서는 매달 법대신문을 발간했으며, 경제법학회, 국제법학회, 사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학술학회들은 세미나를 진행했다. 평지에서는 법대 축제 때 성의식관련 설문조사 부스전을 열기도 했다.



### ALSA

ALSA(Asia Law Student's Association)는(이하 '알싸') 아시아 법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대규모 국제학술문화교류 연합동아리이다. 알싸는 2000년에 발족된 이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7년 현재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지부는 본교를 포함하여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에는 제7회 Asian Forum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F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년 만이다. 본 포럼에서는 주로 법제도와 관련된 세계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테이블 토론을 하며 각 나라의 가치관, 제도 및 문화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를 배우며, 사법기관을 방문하고,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는 등의 행사를 갖게 된다.

### Jessup

제섭(Jessup)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모델로 하여 전 세계의 법학생들이 변론을 펼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를 매년 미국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대학별 2명씩으로 이루어진 원고 팀과 피고 팀이 매 경기마다 한쪽씩 상대방과 대결하게 된다. 예선성적으로 24강에 진출할 팀이 정해지고, 24강 이후부터는 토너먼트 식으로 결승까지 이어진다.

서울대 제섭 팀은 꾸준히 국제전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가해왔다. 서울대 팀은 그동안 경기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학부 1학년생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는 한계를 딛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 1995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2005년에는 서울대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에 올랐고, 개인 성적으로도 2006년에 현재 법학부에 재학 중인 신지원(20) 학생이 구두변론 점수를 기준으로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동대학교가 국제전에 진출하게 되었고, 서울대 팀은 제14기를 뽑아 내년 2월에 있을 국내전에 대비하여 국제법적 기초를 닦고 있다.

### 서울 법대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6년 11월부터 격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법조계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서울 법대 초청강연>을 시작하였다. 서울 법대 초청강연은 강연자 섭외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선배로부터 법학자로서의 진로, 법학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제3회	『서울 법대 초청강연』
연사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22회 동문)
주제	검사와 국회의원의 사이에서
일시	3월 28일 (수)
제4회	『서울 법대 초청강연』 김용담 대법관
연사	김용담 대법관(24회 동문)
주제	내가 걸어온 법관의 길
일시	4월 11일 (수)
제5회	『서울 법대 초청강연 안내』
연사	정상명 검찰총장(26회 동문)
주제	검사로의 길 : 고뇌와 보람
일시	4월 25일 (수)
제6회	『서울 법대 초청강연』 원희룡 국회의원
연사	원희룡 국회의원(40회 동문)
주제	"청년정신과 한국의 미래"
일시	5월 9일 (수)
제7회	『서울 법대 초청강연』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
연사	장기표 새정치연대대표(24회 동문)
주제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일시	5월 23일 (수)

###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사업단은 법학연구분야에서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심사와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 제97회	2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arch for the Truth : A Misnomer?</li> <li>• Danny Chun(미국 뉴욕주 판사)</li> </ul>	
● 제98회	3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서의 계약책임법의 현대화</li> <li>- 일본민법의 개정을 지향하여</li> <li>- 시오미 요시오 교수(일본 교토대학)</li> </ul>	
● 제99회	3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rrent Issues of Legal Education in the U.S.A.</li> <li>• Christopher Edley Jr.(U. C. Berkeley법대 학장)</li> </ul>	
● 제100회	4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s neue Bild der Ethik-Kommissionen im deutschen Arztrecht</li> <li>- (독일 의료법상 윤리 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구상)</li> <li>- Erwin Deutsch 교수(독일 괴팅겐대학)</li> </ul>	
● 제101회	5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w and the Social Sciences(법과 사회과학)</li> <li>• Tim Murphy 교수(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li> </ul>	
● 102회	5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li> <li>-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Global Economy)</li> <li>- Francis Gurry 사무부총장(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li> </ul>	
● 103회	5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Rights of Minorities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li> <li>- Gudmundur Alfredsson 교수</li> <li>- (스웨덴 Lund대학교, Raul Wallenberg Institute 전 소장)</li> </ul>	

###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학기 중 매주 수요일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법학연구소와 BK21법학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그동안 교수 집담회로 이루어지던 것을 2006년 3월에 법과 문화 포럼으로 개칭하였으며,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도 법학분야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조국 교수가 기업범죄에 관하여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하버드대 Einer Elhauge 교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Robert Bennett 교수, 독일 본 대학 Martin Schermaie 교수가 법학 분야의 발표를 했다.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는 함무라비법전에 대하여, 수의대 강경선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는 한센병에 관하여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인 본교 최민석 학생은 시각장애학생이 어떻게 법학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했다.

## 최고지도자과정



### ●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

#### ● 교과과정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과대학에 개설된 최고지도자과정인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Advanced Law Program)]은 2004년 개설된 이래 세계화 시대의 국가전략, 국가 경영과 현대 사법, 한국경제와 법의 지배,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과 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최고지도자들에게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지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 ● 제6기 과정

이번 제6기 과정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 2회씩 강좌를 진행해왔다. 2회 중 1강은 타 대학 교수 및 사회인, 본교 비법대교수가 맡고, 2강은 본교 법대교수들이 강의하여 현실과 이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였다. 4월 28일에는 야외특강, 4월 12일과 5월 22일에는 부부특강이 있었으며, 과정 중간에 수강생들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기회도 가져왔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중국 위하에서 졸업특강이 계획되어 있다.

#### ● 성과

이번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 사회의 지도이념이 반영된 가치체제로서의 법에 대한 지식과 광대하고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기존의 다른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사회 발전 동력의 법시스템화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장을 연 성과도 거두었다. 이러한 최고과정의 운영은 법치주의의 확산을 통하여 원칙과 정의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 ALP 동창회 활동

현재 1기에서 5기에 걸쳐 200명에 달하는 [서울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는 제1대 회장으로 황의만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를 선출하여 운영해왔으며,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된 올해 2월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김양옥 서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하여 조찬특강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창회를 활성화시켜 왔다. 총동창회는 서울대 동창회 입회에 이어 조만간 서울 법대 동창회에도 입회할 예정이다.

### ● 제6기 과정의 강의

3월 8일	안경환 최종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한국사회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서울 법대 교수 : 법과 정의의 상징
3월 13일	박세일 신동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서울 법대 교수 :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월 15일	이준구 장승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시장과 정부 서울대 법대 교수 : WTO/FTA 시대의 우리사회와 법
3월 20일	윤영관 한인섭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장관) : 한반도 평화와 외교 전략 서울대 법대 교수 : 국민의 사법참여-그 당위성의 제도화를 위하여
3월 22일	장달중 윤진수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동북아 새 판짜기와 한반도 냉전질서의 재편 서울대 법대 교수 : 進化心理學 家族法
3월 27일	유우익 박상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장소의 의미 - 한반도의 지정학 서울대 법대 교수 :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변천
3월 29일	김도연 김재형	서울대 공대 학장 : 우리나라 (이공계)대학 어디에 있나? 서울대 법대 교수 : 모텔小說과 人格權
4월 3일	서경호 이상면	서울대 중문과 교수 : 중국의 문인전통과 지식문화 서울대 법대 교수 : 협상의 원리
4월 5일	문용린 정상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전 교육부 장관) : 미래전망과 삶의 질 서울대 법대 교수 : 3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술과 법
4월 10일	김난도 정공식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 사치의 소비학 서울대 법대 교수 : 조선 후기 중법적 제사상례와 가족의 변화
4월 12일	부부특강	정진호 교수(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 피부노화의 원인과 예방
4월 17일	이문한 양창수	서울대 수의대 학장 :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서울대 법대 교수 : 言論의 자유와 人格保護의 충돌
4월 19일	박태호 이원우	서울대 국제대학 원장 : 한미 FTA - 협상결과와 평가와 과제 서울대 법대 교수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4월 24일	장인성 배철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일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합우비법전지 후대 법문화에 끼친 영향
4월 26일	정성진 송석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 국가청렴정책의 과제 서울대 법대 교수 : 헌법재판과 정치
4월 28일	야외특강	성낙인 주임교수 :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5월 3일	조 국 이근관	서울대 법대 교수 : 유죄담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서울대 법대 교수 : 간도는 과연 누구 땅인가?
5월 8일	이달곤 최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의 갈등관리와 협상 서울대 법대 교수 : 동서 법문화의 비교
5월 10일	안대희 정종섭	대법관 : 한국사회의 법치주의 서울대 법대 교수 : 한국의 미래와 헌정 개혁
5월 15일	권오승 정인섭	공정위원장 : 선진경제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서울대 법대 교수 : 한국의 영토문제
5월 17일	정재성	서울대 불문과 교수 : 유럽문명의 기원 와인특강(대한항공 와인박사)
5월 22일	부부특강	고려대 함성득 교수 : 대통령학
5월 29일	김화진 김도균	서울대 법대 교수 : 국가안보와 대기업의 경영권 서울대 법대 교수 : 법의 지배
5월 31일	홍두승 조홍식	서울대 사회대 교수 : 군과 시민 사회 서울대 법대 교수 : 환경리스크 통제방안
6월 5일	홍준형 이창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자정부와 법 서울대 법대 교수 : 소득세제와 소득개념 형성사
6월 7일	김태유 김건식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서울대 법대 교수 : 경영자보수와 기업지배구조
6월 12일	박종소 구대환	서울대 인문대 교수 : 회화작품으로 보는 러시아문학 서울대 법대 교수 : 미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6월 14일	주경철 송옥렬	서울대 인문대 교수 : 네덜란드-적고 행복한 나라 서울대 법대 교수 : 기업소유구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6월 19일	성낙인	주임교수 특강

##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 ● 제23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 • 교과과정

1996년 개설 이래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각 최근 법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온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는, 2007년 봄 제23기 과정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14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다.

#### • 제23기 과정

이번 제23기 과정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법대 서암홀에서 2교시씩 강의를 진행했다. 각 강의는 50분의 강의와 30분의 토론, 질의, 응답시간으로 구성 되어있다. 강사진으로는 교수를 비롯하여 증권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로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4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블럭세미나를 다녀왔으며, 6월 9일에는 조별로 종합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 성과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실무 일선에서 법시스템을 움직여가는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전문적인 법학 지식을 제공하였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 ● 연혁

1996년 개설 이후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96년의 1기부터 2006년의 22기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금융거래법, 조세법, 보험법, 행정소송·행정법,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금융거래법, 노동법, 인터넷과 법률, 기업의 갱생·도산과 법, 국제통상법·정책과 실무, 조세법, 인터넷과 법률Ⅱ,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통합도산법, M&A의 이론과 실무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어왔다.

### ● 제23기 강의 내용

일자	시간	주제
3. 5	18:30~	입학식
	19:30~ 20:00	자본시장통합법의 이론과 실무
3. 12	1교시	자본시장통합법 개관(I)
	2교시	자본시장통합법 개관(II)
3. 19	1교시	금융투자상품(I) - 금융투자상품, 증권
	2교시	금융투자상품(II) - 사례연구
3. 26	1교시	금융투자상품(III) - 파생상품
	2교시	금융투자상품(III) - 파생상품
4. 2	1교시	금융투자업 - 분류와 범위
	2교시	금융투자업 - 업무범위 확대/겸업
4. 7(토) ~	1교시 (13:00~16:00)	금융혁신과 분쟁사례
4. 8(일) (블럭세미나 1박2일)	2교시 (16:30~19:30)	이해상충
	1교시	투자자 보호(I) - 기본원칙과 투자권유규제
4. 16	2교시	증권회사 관점에서 본 자본시장 통합법상 투자자보호
	1교시	특강 : 금융산업전략적 관점에서 본 자본시장통합법
4. 23	2교시	금융투자상품 설계사례(II) - 상품파생상품
	1교시	금융투자업(III) - 인가와 등록
4. 30	2교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원칙
	1교시	은행업과 자본시장통합법
5. 7	2교시	보험업과 자본시장통합법
	1교시	회사법개정과 금융거래(I)
5. 14	2교시	회사법개정과 금융거래(II)
	1교시	집합투자의 실무와 규제(I) - vehicle의 확대와 운용규제
5. 21	2교시	집합투자의 실무와 규제(II) - 타부처 펀드
	1교시	집합투자의 실무와 규제(III) - 부동산금융
5. 28	2교시	집합투자의 실무와 규제(IV) - 과제와 전망
	1교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I)
6. 4	2교시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II)
	13:30~ 18:30	조별 종합 발표 및 평가
6. 9 (토)		
6. 18 (월)	18:30~ 19:30	수료식

## 신임 노혁준 교수 인터뷰

**지**난 3월 29일 오후, 본교 17동의 연구실에서 한승표 기자(03)와 최진영 기자(06)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 본교에 새로 부임한 노혁준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기자 :** 학부를 졸업하신 지 십여 년 만에 교수로 부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노혁준 교수(이하 노) :** 서울대학교는 제게 평생을 함께 할 지기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난 곳이고,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익숙한 곳이어서 적응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 :**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 :** 지금 학부에서는 보험해상과 법학개론을 가르치고 있고, 대학원에서는 기업합병 및 분할 관련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로 연구해 온 부분은 회사법 쪽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 첨단에는 기업 등 많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상법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함으로써 동시에 사회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재미있는 이슈도 많고,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기자 :** 교수님께서서는 판사, 변호사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법적인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 :** 실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틀에 얽매일 위험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스스로 현실의 벽을 설정하고, 창조적이거나 탄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판사, 변호사의

경험이 아무래도 동일 사건을 보는 시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요. 예컨대 어떤 판결이나 의견을 읽어보면서, 문면상 나와 있는 논리뿐 아니라 행간이랄까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 특히 교수님께서서는 상법 전공이신지라 학교에 있으시면서도 실무(정부의 의뢰라든가 기업의 리서치 의뢰 등)와 매우 밀접하실 것 같습니다. 실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 :** 상법은 기업 현실과 맞닿은 분야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기업 현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로펌 등의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잣대를 들자면, 교수 개인의 공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일방 기업이나 로펌 등 당사자에게 편파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겠지요.

**기자 :**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노 :** 어학실력의 중요성 같은 건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법대의 특성상 입학 이후 대부분 고시에 매몰되어 그 이후에 계속 법에 관련된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예가 많은 것 같은데, 가급적 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interview**